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4

▶ 35회 예고
아쇼까는 담마팔 승려로부터 데비의 전생과 현생에 일어날 일을 듣는다. 데비가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하여 부호의 딸로 태어났으며, 또 결혼해서 낳은 아들과 딸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데비, 산치 언덕서 아쇼까를 만나다

시프라강이 토해내는 안개가 들판과 구릉을 뒤덮었다. 목화꽃이 일제히 피어난 듯 허연 빛깔 일색이었다.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는 물러가지 않겠다는 듯 안개는 완고했다. 그러나 베디샤나가르로 가는 황톳길은 어렴풋이 드러나 보였다. 아쇼까 부왕의 순행은 짙은 안개 속에서 시작했다. 선봉대장이 이끄는 선봉대가 전위부대 역할까지 했다. 기마부대인 호위부대는 코끼리를 탄 아쇼까 부왕의 앞뒤 호위를 책임졌다.

아쇼까는 코끼리등 위 일산 아래 앉아서 전방과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나아갔다. 이동명령은 호위대장을 불러 전하면 호위대장은 선봉대장에게 전했다. 그러니 군마를 타고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호위대장이었다. 아쇼까가 호위대장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는 어딘가요?"

"베디샤나가르입니다."

"베디샤나가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곳을 먼저 가시오."

아쇼까는 사전에 선봉대장과 호위대장이 다녀온 마을이지만 자신도 직접 지형정찰을 하고 싶었다.

"산치에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에 오르면 베디샤나가르를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좋소. 오늘 도착지는 산치 동산이오."

아쇼까의 지시를 받은 호위대장이 선봉대장에게 달려갔다. 명을 전달받은 선봉대장은 또 다시 아쇼까의 주도면밀함에 놀랐다. 군사는 어느 곳을 가든 적의 기습공격을 예견해야 하고, 어디로 후퇴해야 할지를 미리 정해놓고 이동하는 것이 병법의 기본인 것이었다.

호위대장이 돌아오자 아쇼까가 또 말했다.

"숙영지는 정했소?"

"따로 숙영지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소?"

"베디샤나가르에서 주무신다면 숙영지가 필요하겠지만 마을에서 떨어진 저택이 있습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순행의 원칙이오."

"민폐가 아닙니다. 베디샤데바 수장이 부왕님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맞소. 초대받은 것도 같소. 베디샤데바 수장이 연회장에서 나를 정중하게 초대했소."

"그래서 소장이 먼저 가서 정찰을 했습니다."

"저택에서 머물 때 경비 등 문제는 없소?"

"부왕이시여, 저는 저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대장이 어떻게 저택의 사정을 안단 말이오?"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 저택입니다. 저택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저의 외사촌 형입니다."

"왜 그 말을 이제야 하는 것이오. 어쨌든 안심이 되오."

"부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외사촌 형의 이름은 타리쉬입니다."

호위대장은 더 이상의 말은 하지 못했다. 순행에 관한 모든 계획은 비밀에 부치라는 엄명을 해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호위대장은 외사촌 형인 타리쉬에게 아쇼까 부왕이 가니까 저택과 정원을 잘 단장해 두라는 귀띔을 해준 바 있었다.

아쇼까 일행은 아침 해를 마주한 채 베디샤나가르 쪽으로 나아갔다. 고집스럽게 버티던 안개도 어느 새 구릉의 망고나무숲 너머로 물러갔다. 안개 속에서 사탕수수를 수확하던 농사꾼들이 그제야 드러났다. 남녀 할 것 없이 긴 사탕수수 묶음을 머리에 이고서 길가로 옮기고 있었다. 머리에 인 사탕수수 묶음이 걸을 때마다 출렁출렁했다. 사탕수수밭을 지나자, 이번에는 광활한 목화밭이 펼쳐졌다. 아침햇살을 받은 목화꽃이 순백으로 빛났다. 코끼리를 타고 가던 아쇼까가 감탄했다.

'빠딸리뿌뜨라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관이군.'

아쇼까 일행은 작은 강을 만나 잠시 휴식을 취했다. 강을 건너려면 진흙이 없는 곳을 찾아야 했다. 코끼리는 체중 때문에 군마와 달리 자갈이 많아야 강을 건너기가에 용이했다. 강을 먼저 건너갔던 선봉대장이 다시 돌아와 아쇼까에게 보고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날이 저물지도 모르니 여기서 마지막으로 휴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바닥은 어떻소?"

"진흙 반, 자갈 반입니다. 말이나 코끼리가 건너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휴식한 뒤 이곳으로 건너가도록 하시오."

선봉대장은 미리 지형을 답사, 정찰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했다. 아쇼까는 코끼리가 강가의 풀을 뜯어먹는 것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강가의 풀을 다 먹어치울 기세군.'

코끼리는 호위군사의 눈치를 보면서 눈앞의 풀을 쉬지 않고 먹었다. 그러다가도 강가로 내려가 코와 입으로 강물을 실컷 들이켰다. 이윽고 아쇼까가 호위대장을 불러 명했다.

"이동하시오."

아쇼까 일행은 강을 무리 없이 건넌 뒤 베디샤나가르를 향해 갔다. 한 나절을 더 동남쪽으로 내려가자, 멀리 산치 동산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산치 동산은 실제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었다. 들판과 구릉 끝의 지평선이 주는 착시현상 때문이었다. 적어도 한나절은 쉬지 않고 더 가야만 산치 동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아쇼까는 웃자인으로 오면서 광활한 들판을 지나는 동안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요령을 터득하고 있었다.

마침내 아쇼까 일행은 산치 동산에 도착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민둥산 같은 동산만 있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붉은 벽돌집이 하나 나타났다. 아쇼까가 호위대장을 불러 물었다.

"저것은 망루인가? 군사 시설인가?"

"아닙니다. 절입니다. 베디샤데바가 지은 절입니다."

"사끼야족 후손들은 개인 절을 갖고 있는 것이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베디샤데바 가족이 기도하기 위해 지었을 것입니다."

절에 먼저 들어가 정찰한 선봉대장이 승려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부왕이시여, 이 사문이 절책임자입니다."

아쇼까가 코끼리 등에 앉은 채 말했다.

"절에 들어가 볼 수 있소?"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분이 기도 중입니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오?"

"예, 부왕이시여. 기도가 끝날 때까지 군사들은 조용해야 합니다."

아쇼까는 선봉대와 호위부대 군사들을 절문 앞에서 몇 십 걸음 물어나게 지시했다. 그제야 절 책임자 승려가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소개했다.

"소승 담마팔은 부왕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위해 배려해주는 부왕님을 소승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문은 한 사람의 기도를 위해 배려하고 있소. 나는 겸손한 사문을 잊지 않을 것이오."

아쇼까가 코끼리 등에서 내려와 담마팔 사문에게 공손하게 합장했다. 그런 뒤 물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예, 베디샤데바 수장님 딸 데비입니다."

"데비라고요?"

아쇼까가 미소를 짓자 담마팔 사문이 말했다.

"부왕이시여,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베디샤데비를 한 번 본 적이 있소. 여기서 또 만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소. 이것도 특별한 인연이오."



아쇼까는 데비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절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서 동산을 배회했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이 활활 불타는 듯했다. 솜덩이 같은 구름 조각들마저 곧 벌겋게 타버릴 것 같았다. 잠시 후였다. 담마팔 사문이 데비를 데리고 아쇼까에게 왔다.

"부왕이시여, 데비입니다."

"오, 데비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줄 전혀 생각지 못했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담마팔 사문이 슬그머니 물러나 자리를 피했다. 그러자 아쇼까가 데비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산치 동산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성스럽기까지 하오."

"저는 석양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석양은 밤을 부르면 지평선 안에 살아 있는 것들이 어머니 품속에 안긴 듯 잠을 자니까요."

"오, 데비의 자애로운 마음이 느껴지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석양을 보고 어머니를 생각하겠소."

베디샤데비는 아쇼까가 자신을 어머니처럼 자애롭다고 말하자, 갑자기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다. 데비의 얼굴도 노을처럼 붉어졌다. 그러나 아쇼까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데비의 얼굴에도 노을이 어렸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산치 동산에도 어스름이 슬금슬금 차올랐다. 선봉대장이 다가와 말했다.

"부왕이시여, 이제 베디샤데바 수장이 기다리고 있는 저택으로 가셔야 합니다."

"알았소."

아쇼까가 코끼리를 타면서 데비에게 권했다.

"이 코끼리를 타겠소?"

"부왕님 코끼리를 감히 제가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타고 온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타고 먼저 가시오. 나는 군사들과 천천히 데바 수장의 저택으로 가겠소."

아쇼까의 말은 상대를 복종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베디샤데비는 아쇼까의 말을 명령처럼 받아들였다. 더구나 데비는 아쇼까 부왕이 산치 동산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베디샤데바에게 빨리 알릴 필요가 있었다. 데비는 말을 생각보다 잘 탔다. 말 등에서 허리를 잔뜩 굽힌 뒤 달렸다. 데비의 머리카락이 말갈기처럼 날렸다.

집에 도착한 데비는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소리쳤다.

"부왕님이 우리 집으로 오신답니다! 부왕님이 우리 집으로 오신답니다!"

"다 알고 있다."

정원에 나와 있던 베디샤데바가 조용히 말했다. 데비가 무안해하며 타리쉬에게 물었다.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데비 아가씨, 며칠 전부터 집과 정원을 단장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저택과 정원을 서서히 에워쌌다. 집사 타리쉬가 지시하자 하인들이 일제히 저택의 방들로 들어가 기름불을 켰다. 마치 하늘에 별이 돋는 것처럼 기름불이 하나 둘 켜졌다. 정문에서 저택 현관으로 들어오는 길 양편에는 횃불이 타올랐다. 저택 주변은 대낮처럼 환해졌다. 대형화분의 부겐빌리아 꽃들이 횃불 불빛에 순결하고 요염하기조차 했다.

데바 가족은 물론 하인들 모두 정문 밖에서 도열했다. 아쇼까를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데바와 데비도 아쇼까를 기다렸다. 이윽고 아쇼까가 코끼리 등에서 내려와 어둠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흰색 도티와 모자 때문에 아쇼까만 유독 활기차게 보였다. 좌우로 선봉대장과 호위대장이 한 걸음 뒤따라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림자 같았다. 데바와 데바 부인이 아쇼까 앞으로 나아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부왕이시여,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고맙소."

하인들도 일제히 땅바닥에 엎드려 아쇼까를 맞이했다. 아쇼까는 정문에 들어서면서 한껏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쇼까의 미소가 횃불 불빛에 드러났다. 아쇼까가 하룻밤 묵게 될 방까지는 데비가 안내했다. 아쇼까는 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베란다로 나와 저녁을 데바, 데바 부인, 데비와 함께 할 계획이었다. 〈계속〉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대형사찰 명품고가의 마이크와 비교시 장난감수준의 차이를 확인 후 할부구입

전화를 주시면 그 부근을 지날때 정확하게 비교만 해드림

▣ 특징 : 권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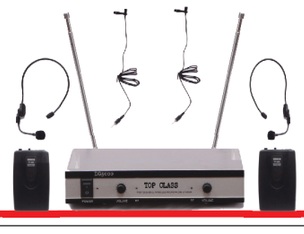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전국 최초 최고불자명품교육기관]

무명에서 빛을 찾아 함께 갑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년 맞이

하반기 신입생 大모집 유튜브 강좌 개강

정 규 과 정

■ 기초교리학과 (6개월, 화 / 유튜브 강좌 병행)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학장 스님)

■ 불교엘리트 1기 (6개월, 목 / 유튜브 강좌 병행)
●금강경 (前 해인사 강주 보윤스님)

신규탁 교수의 유튜브 강의

■ 벽암록 (3개월, 월 · 수 / 각 30분)
●선종의 최고 과목

■ 화엄경 (6개월, 화 · 금 / 각 60분)
●교종의 최고 과목

자격증 취득 과정

■ 불교문화학과 (6개월 / 김춘식 교수)
사찰문화재 중심 시청각 강의 및 현장답사
▶불교문화 포교사(수) (민간자격 등록 2018-000374)
▶불교문화 전문지도사(금) (민간자격 등록 2019-000629)

승려연수 인증교육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10/18(월)~22(금) 5일간 13:30~16:30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비대면 ZOOM 화상 교육 (조계종 승려 50명)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